통일화보

주체110(2021)년
(9－10월)
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

통일화보

주체110(2021)년 5호 (9－10월)

절세의 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성대히 거행 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1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16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1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25

도자공예 《부귀인생》 26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여 28

공화국의 현실

국토의 면모가 일신된다 42

풍요한 간석지벌의 저녁 46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50

국산화가 정말 좋다 54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 58

앞날의 민족악기연주가들 여기서 자란다 60

교정의 작은 식물원 64

밝고 창창한 미래가 보인다 68

한식솔이 된 스승과 제자 72

동심에 맞는 아동가구를 제작하는 발명가 76

재능의 싹을 키워가는 원예사 78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 80

백운산의 가을 84

표지: 공화국의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뒤표지: 공화국창건일을 성대히 경축하는 청년학생들

2

46

58

64

72

편집: 리대성, 정철성

소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진행 36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미싸일들과 새형의 탄도탄시험발사 진행 38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40

40

슬기로운 우리 민족

개천절기념행사 진행 86

력사유적 개성령통사 90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 발굴 91

90

《전쟁연습반대》, 《파쑈악법철폐》 남녘민심의 웨침 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73돐

9.9절
73돐

9.9절

백두의혁명정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색되여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력사를 새기고있는 우리 당이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앞에는 조성된 혁명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위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난관이 겹쌓인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 정책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당중앙과 공화국정부의 기본투쟁로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전반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광명한 승리에로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입니다.

김 정 은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자위-202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과시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의 력사적의의는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이 없으며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불멸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사심없는 혁명적지원을 주었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력량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중 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피와 목숨으로 조중친선력사우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겼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지원군 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의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중친선은 세대가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과 경의를 담아 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낸다고 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정중히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보내는 화환들이 정중히 진정되였다.

도자공예

《부귀인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화교련합회 중앙위원회에서 드린 선물

주체103(2014)년 1월 8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령도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인민의 가슴마다에 숭엄히 안겨온다.

이 땅우에 인민의 꿈이 꽃피는 리상사회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실 불같은 념원을 안으시고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영상이.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한개 공사대상을 위해서만도 수많은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흙먼지날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이 땅에 솟아오른 건축물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문명의 꽃방석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망과 애민헌신이 안아올린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글 한진아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

과학기술전당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릉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통일거리운동쎈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 애육원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평양양로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류경안과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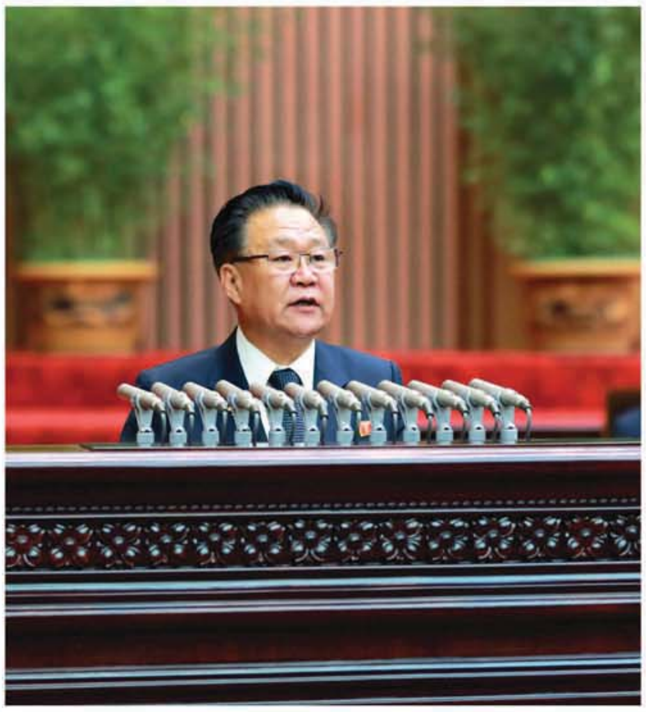
려명거리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지난 9월 28일과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밝힌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투쟁기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여섯째, 조직문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혁명적자각과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미싸일들과 새형의 탄도탄시험발사 진행

장거리순항미싸일

장거리순항미싸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구간에서 미싸일의 비행조종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싸일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하였다.

반항공미싸일

국방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싸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반항공미싸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 진행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동해상 800㎞수역에 설치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국토의 면모가 일신된다

공화국에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국토관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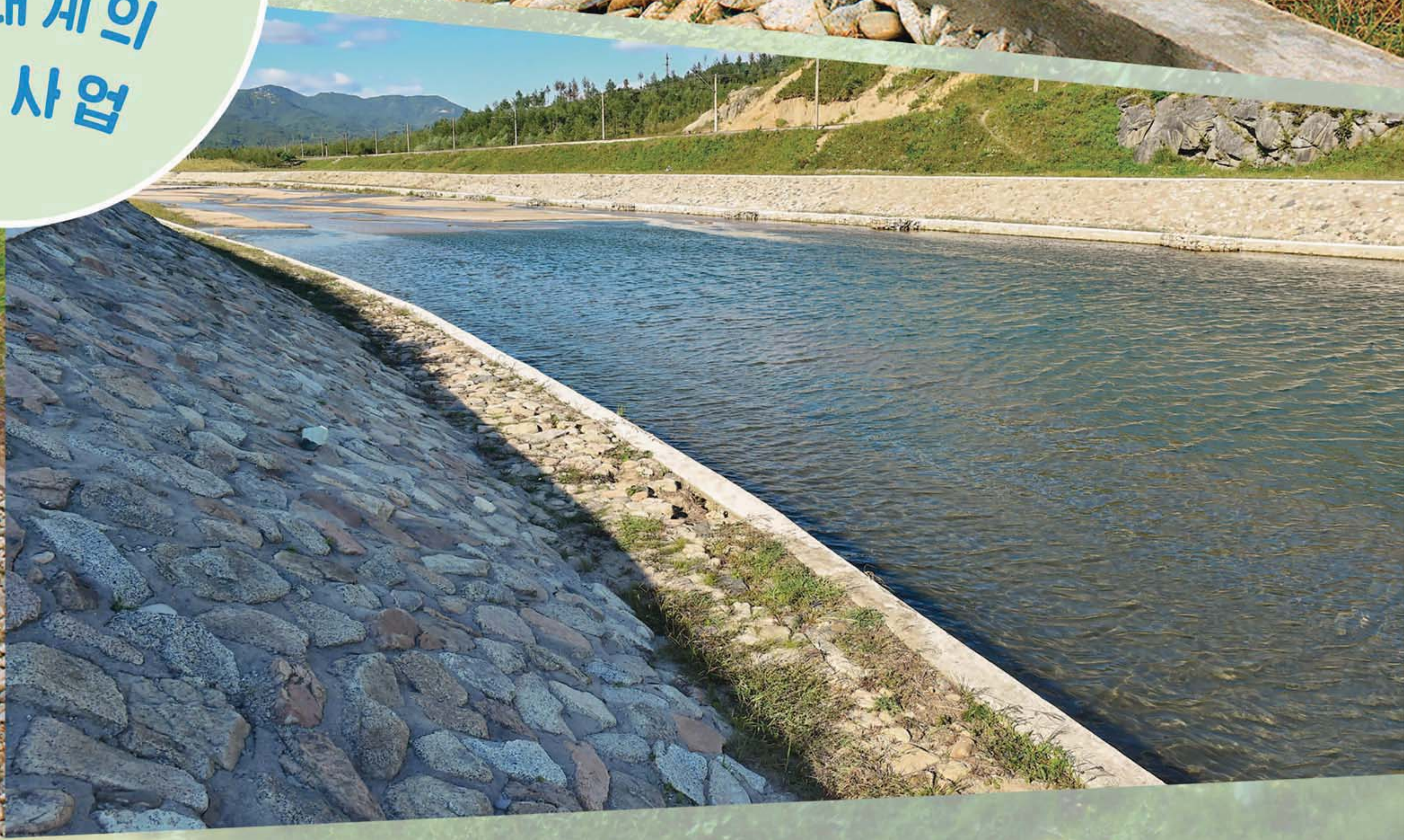
공화국의 각지에서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무심기, 강하천정리, 제방보수, 사방야계공사, 해안방조제공사를 비롯한 치산치수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열의에 의해 국토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고있다.

글 윤금철

국토관리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



풍요한 간석지벌의 저녁

- 평안남도 문덕군 룡림리 -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일념 안고 온 한해 협동벌에 애국의 마음 바쳐온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농장원들이 가을걷이를 걸싸게 다그치고있다.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 민들레학습장공장 -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학습장을 생산보장하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다른 나라의 설비들로 이루어졌던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생산을 장성시킬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절단, 인쇄, 접이, 제책 등 분산형구조로 되여있던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종합적인 학습장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대중의 창의창발성으로 가치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흘렉소인쇄—철사제책종합흐름선(자력갱생 1호)과 같은 현대적인 설비가 제작되여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능력이 큰 종이공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다 쓴 민들레학습장에 대한 회수체계와 파지수집체계를 세워놓아 원료, 자재걱정을 모르고 생산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생산정상화의 동음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조국의 미래가 그려지는

민들레 학습장

아이들의 꿈이 담긴

소나무

책가방

국산화가 정말 좋다

-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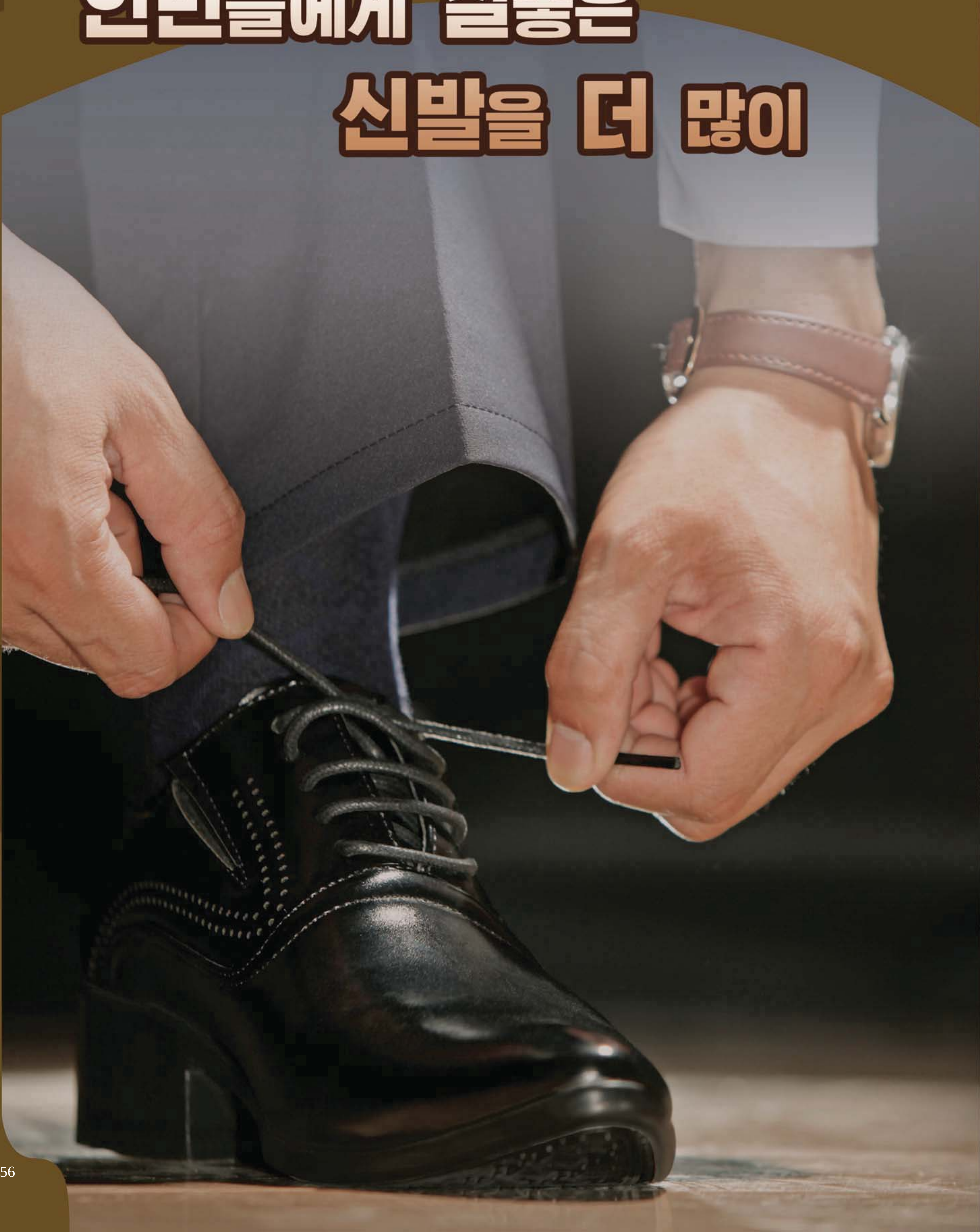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와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골과 형타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겠다.

과학기술부소장

사진 최광혁

아리랑 신발연구소

인민들에게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

-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외과학강좌 -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의학대학병원 아동병동에는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권위있는 의료집단이 있다.

소아외과학강좌의 의료일군들이다.

이곳 의료집단은 20여년전에 조직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확대간우엽절제술, 예방적무통관리, 전신항감염대책 등 어려운 수술방법들과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는 치료방법, 수술후 관리방법들을 확립하여 유아사망률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나날 강좌에서는 심한 화상으로 생명지표가 경각에 이른 2살 난 소녀에게 새로운 피부알갱이이식수술방법을 도입하여 원상대로 회복시키고 외상성 12지장하행부파렬 및 후복막담즙성복막염을 비롯하여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수많은 최중증환자들을 소생완치시켰다.

올해에도 의료집단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와 의료봉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전신화상, 간파렬, 선천성총수담관확장증을 비롯한 병증세가 위험한 각지의 어린이들을 수십명이나 소생시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하였다.

이곳 의료집단은 오늘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기 위해 새 수술방법을 부단히 연구하여 림상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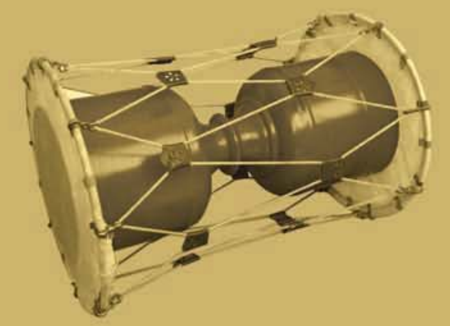
1

2

3

1 2 3 높은 의료기술과 뜨거운 정성을 지니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진심을 바쳐가는 의사, 간호원들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정상적으로 리용하여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앞날의 민족악기연주가들 여기서 자란다

-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 -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악기는 얼마나 될가?

가야금, 해금, 양금과 같은 현악기와 단소, 저대, 피리, 새납 그리고 장고, 꽹과리, 북을 비롯한 목관악기와 타악기들…

이렇게 다양하고 우수한 민족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연주가들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이다.

공화국의 이름있는 예술단들에서 활약하는 민족악기연주가들의 대부분이 이 학부의 졸업생들이다.

민족기악학부는 해방후 평양국립음악학교(당시)창설과 함께 생겨났는데 그때에는 가야금, 단소를 비롯한 몇가지 민족악기연주법을 배우는 적은 수의 학생이 고작이였다. 그러던것이 오늘에 와서는 10여가지의 민족악기에 대학생은 수백명을 헤아리고있다.

이 학부에는 가야금강좌와 해금강좌, 민족관악강좌가 있다.

4년제대학반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과에서 민족악기의 특성에 맞는 각이한 연주기법들을 배우며 우수한 학생들은 국가적인 규모의 예술공연에 출연하기도 한다.

또한 민족악기연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소학반, 초급반, 고급반에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아마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기악학부의 학생들이 민족악기연주기법을 배워가는 대견한 모습을 보노라면 공화국에서 민족악기연주가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느끼게 될것이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은방울
은방울

종합안내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키워가신 창덕학교

교정의 작은 식물원

- 창덕학교 -

절세위인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유서깊은 창덕학교가 원림록화사업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로 그 모습을 일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학교의 주변에는 원래 몇종의 나무와 관목들이 고작이였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과 훌륭한 학습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학교청사를 중심으로 원림록화구역을 새롭고 특색있게 조성하였다.

원림록화구역을 7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스트로브스소나무, 보리수나무, 좀매자나무, 화백나무와 같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복숭아, 사과, 추리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을 심었으며 목란, 진달래, 장미 등 꽃관목들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현재 원림록화구역에서는 74종에 1 000여그루나 되는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자라고있다.

뿐만아니라 곳곳에 참매와 풍산개를 비롯하여 여러 동물조각상들도 만들어놓고 걸음길들에는 산뜻한 의자까지 놓아주어 학생들의 휴식터, 학습터로는 물론 실물교육거점으로 리용되도록 하고있다.

하기에 이곳 교직원, 학생들은 록음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원림록화구역을 두고 누구나 《교정의 작은 식물원》이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교정의 작은 식물원.

날이 갈수록 더욱 푸르러 설레이며 창공을 향해 아지를 뻗어가는 나무들처럼 이곳 학생들의 애국의 마음도 함께 자라나리니 어찌 교정의 식물원을 작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사진 리춘송, 글 한진아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학습터**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을 지어주는 **휴식터**

밝고 창창한 미래가 보인다

- 평양시축구학교 -

전야를 날아예는 새들인양 축구공과 함께 쉬임없이 푸른 주단우를 누비는 나어린 축구선수들.

창공으로 날아올랐던 축구공이 어느새 한 선수의 발치에 떨어져 마치 마술에 걸린듯 재롱을 부리다가 문대를 향하여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간다.

가을볕에 얼굴이 감실감실하게 익은 애티나는 선수들이 축구공을 이쪽저쪽으로 몰아대는가싶더니 드디여 25번선수의 강한 차넣기에 의해 공이 문대의 그물을 흔들어놓고야만다.

동평양지구에 새로 일떠선 평양시축구학교 야외훈련장의 정경이다.

현대적인 교사안으로 들어서면 또 어떠한가.

복도벽면을 가득 채운 상식문답판들과 이름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한 소개판들 그리고 다기능화된 교실들에 나란히 앉아 국제축구경기장면들을 보거나 외국어실력향상을 위해 청취에 열중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열띤 목소리에 이끌려 전술모의실에 들어서니 국제경기를 앞둔 선수들마냥 팀의 전술체계를 토의하는 진지한 분위기에 절로 마음이 긴장해지기도 한다.

전도가 유망한 축구선수들을 키워내는 국제축구학교를 비롯한 축구선수후비육성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속에 문을 연 평양시축구학교는 축구에 소질이 있고 머리가 좋으며 육체적조건이 우수한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년령기에 따라 소학반,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으로 나누어 기초과목과 축구리론 및 실기를 위주로 교육한다.

학교를 돌아보느라면 학생들의 축구기술을 높이는데로 교육방향을 집중하고 리론과 실기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교수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는 이곳 교원들의 열정도 느낄수 있다.

현대적인 교육시설들과 훌륭히 꾸려진 야외훈련장과 육체훈련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인 훈련을 받으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앞날의 축구명수로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그들의 나래치는 푸른 꿈과 체육강국으로 이름떨칠 공화국의 래일이 눈앞에 그려진다.

사진 리춘송, 글 한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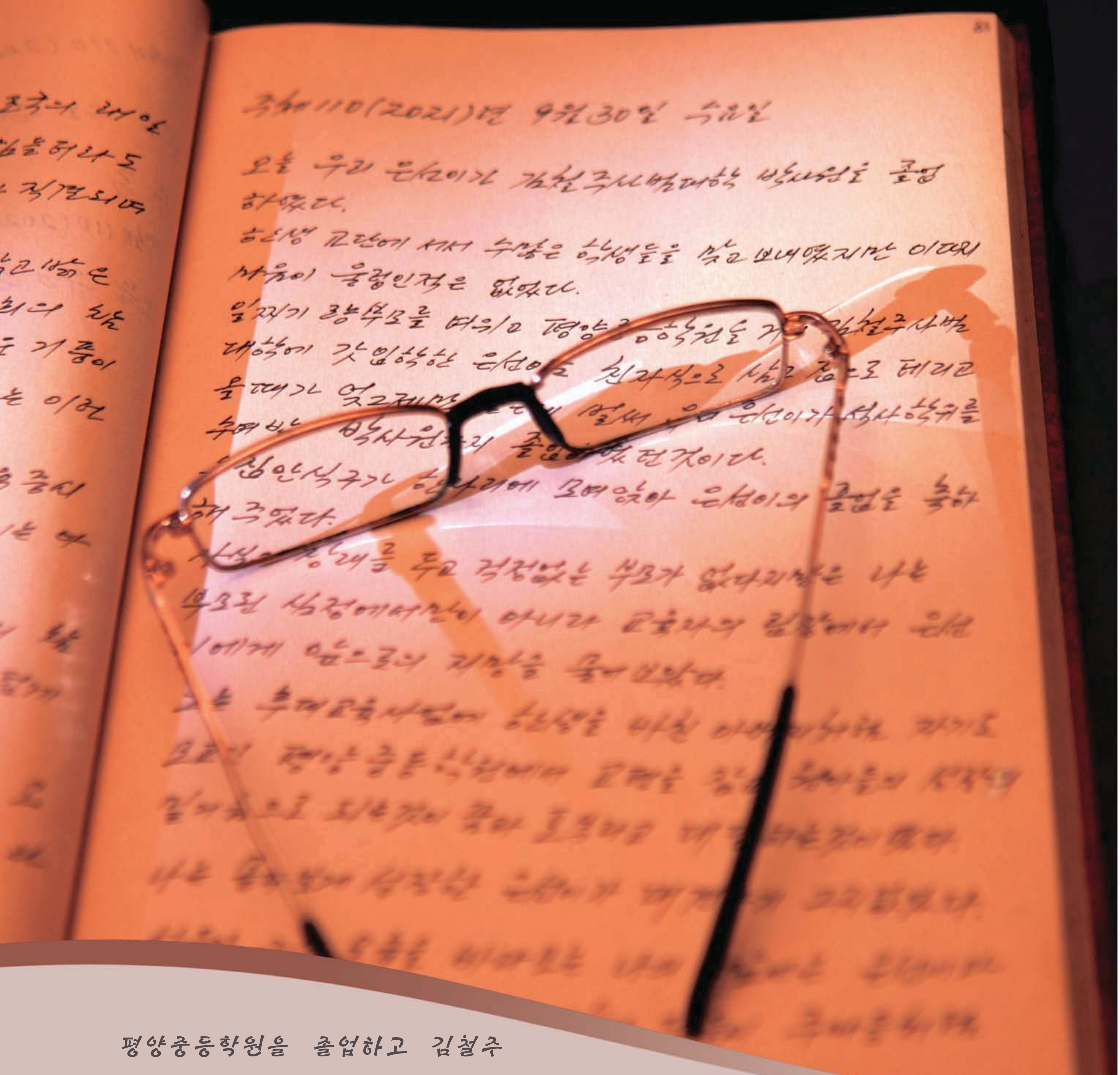
평양시

LET'S LEARN ENGLISH!

축구경기전술체계의 류형
공격전술

한식솔이 된 스승과 제자

- 김철주사범대학 수학부 학부장 리한선생과 리은선 -



평양중등학원을 졸업하고 김철주사범대학에 입학한 은선이가 스승의 딸로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

출근길에 오른 리한선생과 리은선

평범하지만 결코 례사롭지 않은 우리 생활속에는 사제관계가 부녀관계로 된 이야기도 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김철주사범대학 수학부 학부장인 리한선생과 박사원을 갓 졸업한 그의 딸 리은선이다.

30여년세월 교단에서 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리한선생이 학부 학생이였던 은선이를 친딸로 삼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은선이가 대학에 입학한 그해 겨울방학때였다.

리한선생은 은선이가 어디서 방학을 보내고있는지 알아보고나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올 결심안고 평양중등학원으로 찾아갔다. 학원정문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그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졌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오만자루의 품이 들진데 하물며 낳은 자식도 아닌 은선이를 내가…

동정심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다. 교육자의 사심없는 마음으로 혈육의 정과 사랑을 기울여 은선이를 꼭 쟁쟁한 교육인재로 남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이때로부터 스승과 제자는 한식솔이 되였다.

은선이에게 있어서 리한학부장은 다심한 아버지였고 엄격한 스승이였으며 꾸준한 학습방조자였다.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은선이는 대학시절에 교육과학성과등록증을 받아안았으며 박사원기간에는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23살 꽃나이에 푸른 꿈과 희망을 안고 교정을 나서게 되였다.

오늘 리한선생의 가정에 또 한명의 새 식구가 늘어났다.

제대되여 김철주사범대학에 갓 입학한 은선이의 오빠 철우가 화목한 이 집안의 아들로 되였던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식구, 화목한 교육자가정에 새로 꽃펴나게 될 행복의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사진 리춘송, 글 한진아

리한선생의 강의는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한 딸자식, 대학에서는 어엿한 박사원생

화목한 가정에 흘러넘치는 살뜰한 정과 사랑

친부모의 심정으로 오누이를 따뜻이 돌봐주는 리한선생과 그의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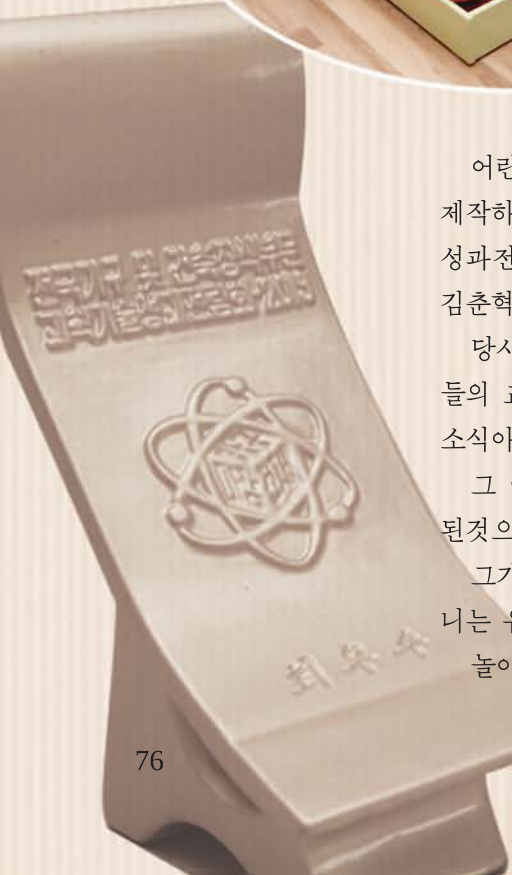
얼마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은선이의 오빠가 화목한 가정의 새 식구로 되였다.

동심에 맞는 아동가구를 제작하는 발 명 가

- 평양시 선교구역 과학기술위원회 김춘혁 -

새형의 아동가구제작을 위한 사색과 탐구는 가정에서도 이어지고있다.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이 리용하고있는 확대축소식아동침대(왼쪽)와 아동책상(오른쪽)



어린이들의 동심에 꼭 맞는 기능성아동가구들을 특색있게 제작하여 지난 2019년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에서 발명증서와 함께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김춘혁을 두고 주변사람들은 발명가선생이라고 부르군 한다.

당시 그가 전람회장에 내놓은 아동가구들은 유치원어린이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할수 있게 창안제작된 확대축소식아동책상과 아동침대였다.

그 아동가구들은 아이들의 동심에도 어울리고 다기능화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아동가구와 인연을 맺게 된것은 언제인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갔을 때부터였다.

놀이방에 놓인 책상이 학교들에서 쓰는것과 구별없는 4각형의 책상들로 되여있는것을 본 그는 간편하고 다기능화된 아동가구를 만들어볼 결심을 품었다.

하여 그는 고심끝에 부채형의 아동책상을 처음 만들었으며 그후 민들레꽃잎을 형상한 확대축소식아동책상과 아동침대, 기능성어린이의자들도 조형학적으로 손색없이 제작하였다.

그가 창안제작한 아동가구들은 오늘 경상유치원을 비롯한 시내의 여러 유치원들에서 널리 애용되고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면 그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꽃피우는데 기여할 새형의 아동가구들을 더 멋있게 만들어낼 결심이라고 말하군 한다.

사진 리춘송, 글 한진아

재능의 싹을 키워가는 원예사

-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 교양원 장선영 -

장선영교양원이 키워가는 나어린 가수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경축공연 《우리 어머니》에 출연하였다.

아무리 고운 꽃이라고 하여도 정성다해 보살펴주고 가꿔주는 원예사가 없다면 아름다움과 향기를 기대할수 없다.

물도 주고 가지도 다듬어주는 원예사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재능의 새싹을 소중히 키워가는 장선영교양원.

그는 금성제1중학교에서 성악교육을 받으며 대학반까지 졸업하고 어느 한 예술단에서 배우생활을 하다가 10여년전에 조기음악교육기지인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의 교양원이 되였다.

뛰여난 음악적소질과 재능을 가진 애어린 싹들을 품들여 자래우는 장선영교양원

포부와 욕망은 컸지만 철부지어린이들에게 노래를 배워주는것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다.

그는 매 어린이들의 소리색갈과 육체적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교육과정안을 세우고 감각과 지능이 발달된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돌려 빠른 기간에 두각을 나타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청음, 시창, 률동 등 음악기초교육의 질을 갱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기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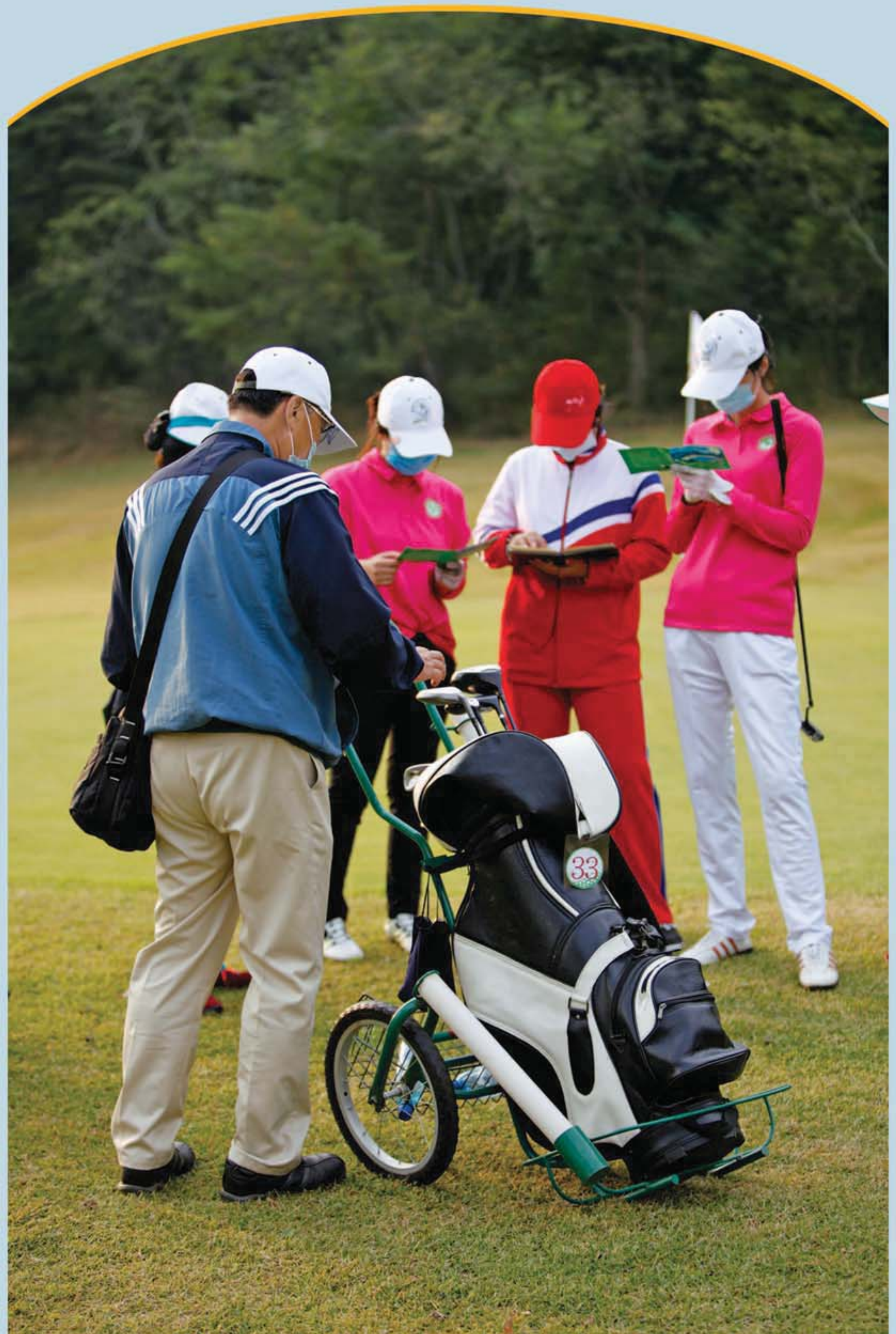
원예사의 땀과 노력은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우기마련이다.

오늘 그가 키운 많은 재간둥이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앞날의 명가수후비들로 자라고있으며 그들속에는 노래를 잘 불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학생들도 있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런 원예사들이 있어 나라의 예술인재의 대는 이어지고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은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는것이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



2021 골프애호가경기
상 장
주체110(2021). 10.

평양골프장

백운산의 가을

백운산은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에 있는 높이 1 077m의 산이다.

해발높이 800m아래에는 소나무와 떡갈나무의 섞임숲이, 높은 곳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를 기본수종으로 하는 넓은잎나무숲이 펴져있다. 오미자, 고사리, 버섯, 고비 그리고 만삼, 산삼, 단너삼과 같은 산중부원도 많다.

백운산에는 고구려때 처음 쌓고 12세기초에 고쳐 쌓은 백운산성도 있다.

개천절기념행사 진행

개천절기념행사가 지난 10월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이 땅우에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탁월한 위인을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어 부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진 리춘송, 글 한진아

《전쟁연습반대》, 《파쑈악법철페》 남녘민심의 웨침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적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악법인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인민들

력사유적

개성령통사

개성에서 동북쪽으로 12㎞ 떨어진 오관산 남쪽의 령통골에 있는 고려시기의 사찰이다.

령통사에는 대각국사비와 당간지주, 3개의 돌탑과 보광원, 경선원을 비롯하여 25개 동의 크고작은 건물이 있으며 그 부지면적은 6만㎡에 달한다.

령통사의 전신인 숭복원은 919년 왕건이 직접 세웠으며 후에 령통사라는 이름으로 고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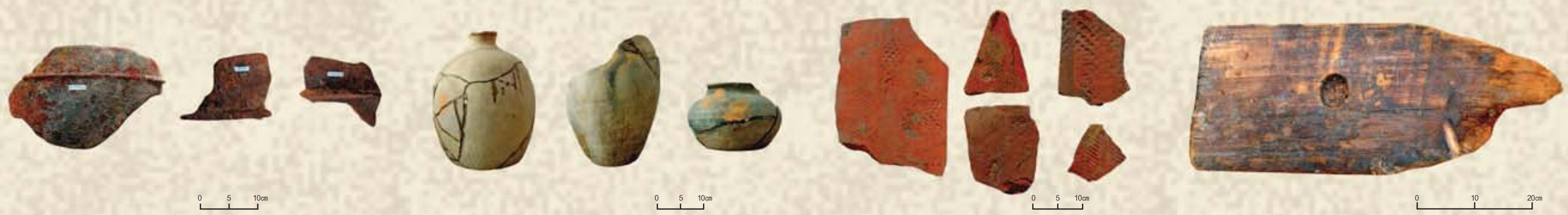
이 사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11세기 《천태종》을 새로운 경지에로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그 시조로 알려진 고려 11대 문종왕의 넷째 아들 의천이 령통사에서 다년간 불교학설을 연구하였기때문이다.

16세기에 불타버렸던 령통사는 주체94(2005)년 10월에 원상대로 훌륭히 복원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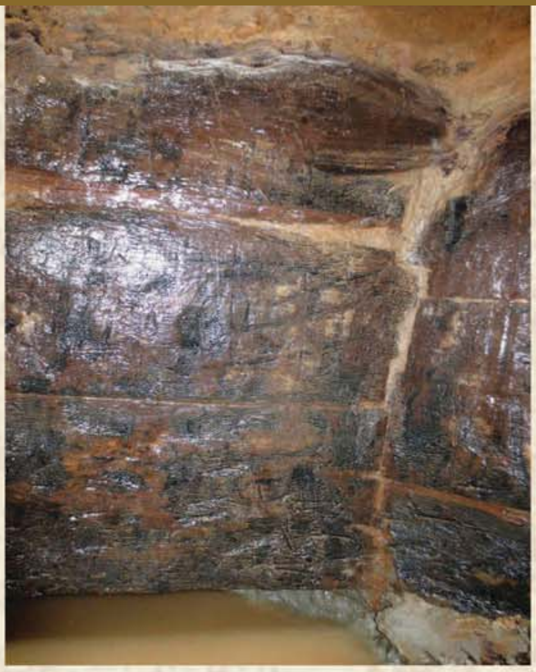
글 윤금철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 발굴

○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의 내부와 4각방틀, 발견된 유물들



○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의 내부와 8각방틀, 발견된 유물들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는 과정에 1세기초부터 고구려가 이 일대를 중요한 지역적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해명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학술연구집단이 최근 이곳에서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부, 2개의 고구려우물(1호,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 많은 기와쪼각, 질그릇쪼각 등을 발굴하였다.

우물유적들은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발굴당시 우물벽의 웃부분의 일부가 파괴되여있었다.

림흥동일대에서는 4개의 주추자리돌들이 있는 건물터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 동서길이 200㎝, 남북너비 150～160㎝, 높이 90㎝정도의 지하벽돌구조물도 발굴되였는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수집되였다.

연구집단은 발굴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문화의 발전면모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는 이 일대에서 조사,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이 학술적의의가 매우 크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의 가치를 평가하고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와 2호를 보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글 장윤정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15ㄷ